

**문화도시부평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 지원
『부평별곳』 활동 지원 공모 사업 최종 선정결과**

구분		단체명	결과
공간형	1	인천알로하 우쿨렐레 앙상블	선정
	2	아이디퍼포먼스	선정
	3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	선정
	4	미추홀정가원	선정
	5	공연창작소 지금	선정
	6	문화예술비빔	조건부 선정
	7	희영트리오	선정
	8	사진디자인그룹	선정
점포형	9	해인기획	조건부 선정
	10	미래문고	선정

심의총평

이번 <부평별곳>은 문화도시부평의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작은 민간 공간을 지원하는 첫 사업이다. 공간형은 구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매개로 공간을 개방함으로써 공간이 생활권내 작은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전망을, 구민들은 생활권내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이 가능할 것인가를 중점에 두고 심사했다. 협업형은 예술인이 지역 작은 공간과 문화예술 창작과 매개를 함께 예술인과 공간이 지역 문화생태계에서의 자기전망을 시도하는 할 수 있는 가를 중점에 두었다.

1차 서류 심사에서는 이러한 주요한 심사 방향에 따라 새로운 지원 사업이 기존 공간과 주체들에게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상상과 실천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를 고려했다. 2차 인터뷰 심사는 지원 사업의 방향과 해당 사업 주체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완과 확인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 내 민간 문화예술공간이 생활권내 거점으로 다양하고 활발하게 자리잡는 것이 무엇보다 지역 문화생태계를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문화도시의 지원 사업이 평가와 심사보단 연대와 협력이란 지향을 두고자 했고, 컨설팅과 인큐베이팅이라는 간접 지원도 추가했다.

지역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설계와 공모 규정과 절차에서 최소한 기준이 애매한 부분은 재단 및 행정 단위에서 재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역 주체들이 공공 지원을 할 때 혼선이나 기회비용을 낮출 수 있고 지역 공공 사업의 신뢰도와 방향성은 지역문화생태계의 매우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지원하는 공간이나 주체 입장에서도 이번 사업을 기존 광역시나 광역 문화재단의 공간 지원 사업과 유사하게 생각해서 기존 사업과 비슷한 구성과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사업은 기존 활동의 변형이 아니라, 구민과 예술가에게 공간을 개방하는 계기가 되는 활동과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었다. 따라서 공간의 개방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참여자 모집이나 방법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기존 네트워크에 의존하거나 피상적인 온라인 홍보를 언급하여 오히려 그 공간의 지역현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현황과 대상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부분이 적어 아쉬웠다. 구민과 예술가에게 개방하는 활동 역시 단순 '문을 열어둔다'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코로나19관련 대응 부분도 물론 여전히 코로나19가 활동과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부분은 있지만, 지역문화생태계에서 작은 민간 공간들의 역할은 무엇보다 생활권내에 직접 소통하는 거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막연한 온라인, 유튜브를 이야기하기보단 좁지만 깊게 풍성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이번 사업의 취지이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 부분에서 새로운 공공 지원 사업이 생기면서 지역문화생태계에 기대하는 건 단순히 새로운 사업이나 활동보다 새로운 다른 시스템이나 방법론이 생겨나는 것일텐데, 기존 예산 계획을 답습하거나 무리하게 여러 개 사업을 하면서 적절한 항목을 책정하지 않거나 새로운 예술창작 노동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은 보완되길 바란다.

지역에서 작은 민간 문화예술 공간을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이 갖는 장소성을 고려했을 때 공간의 기획운영자는 보다 문화예술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에 일정 부분 역량 높여 지금 여기의 다양한 감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평별곳>에서 간접 지원으로 진행하는 컨설팅이나 인큐베이팅이 단순 사업 점검이나 확인이 아니라, 광활하고 다양한 지역성을 가진 부평의 지역문화생태계를 위한 협력과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주체들이 열린 마음과 새로운 전환을 함께 만든다는 연대를 갖기를 바라며 응원한다.